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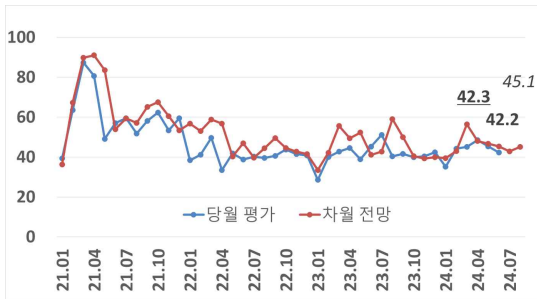
I. 2024년 7월 건설경기평가 및 8월 전망

■ 7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차월도 개선은 미미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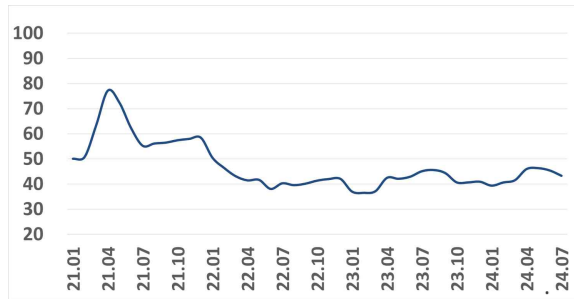
- 7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2.2로 전월(42.3)과 유사했으며(+0.1p), 8월(45.1)에도 업황의 큰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수주감소 및 저가입찰 경쟁,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교육미비 (퇴직공제업무 등), 흑서기로 인한 현장운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7.7(51.0→47.7)로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했으며 (-3.3p), 지방은 40.3(38.9→40.3)으로 전월의 수준이 지속됨(+1.4p).

〈표-1〉 2024년 7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8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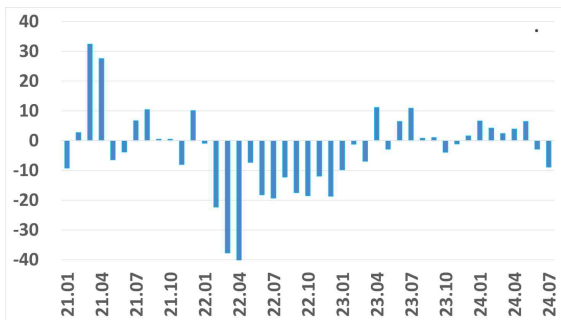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7월 평가	42.2	51.1	47.7	40.3	41.7	50.8
2024년 8월 전망	45.1	59.0	56.8	41.1	54.2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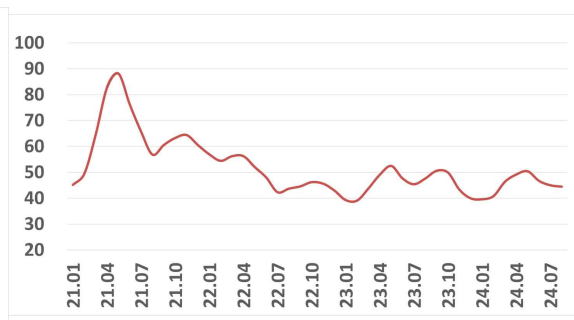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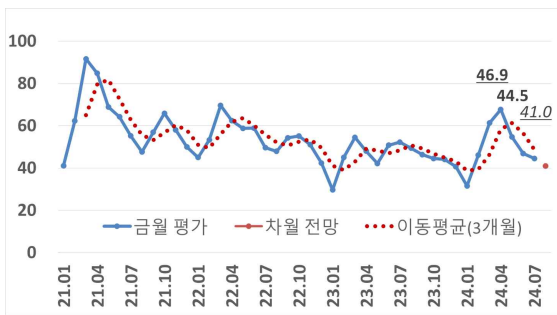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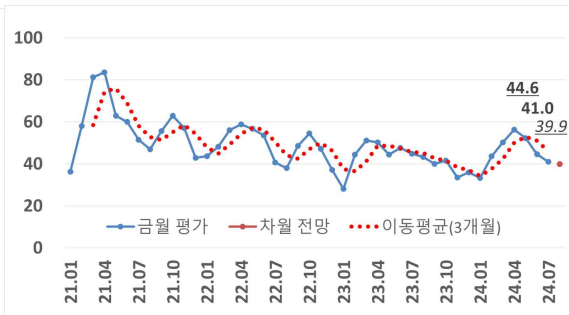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4.5(46.9→44.5)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2.4p), 하도급 수주는 41.0(44.6→41.0)으로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됨(-3.6). 일부 업체는 수해복구와 공공기관의 조기 발주에 따른 체감물량을 답했지만, 업계에 일반화할 정도는 아님.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7.1→38.6)이 크게 악화되었으며(-18.5p), 지방(42.9→46.5)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됨(+3.6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57.1→43.2)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13.9), 지방(39.7→40.3)은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0.6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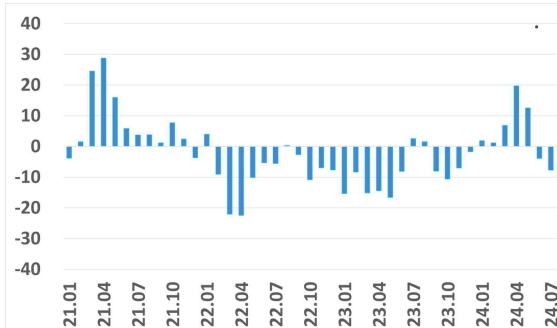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7월 평가	44.5	52.2	38.6	46.5	29.2	59.0
	2024년 8월 전망	41.0	58.4	50.0	38.0	41.7	50.8
하도급 수주	2024년 7월 평가	41.0	44.9	43.2	40.3	33.3	57.4
	2024년 8월 전망	39.9	55.1	45.5	38.0	33.3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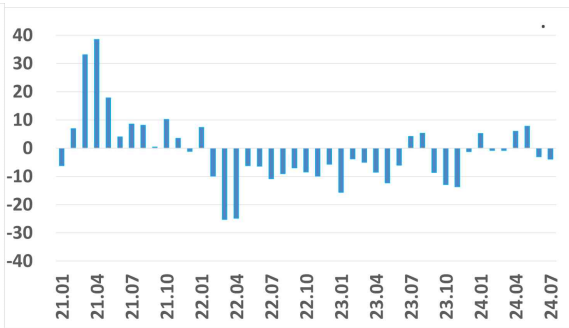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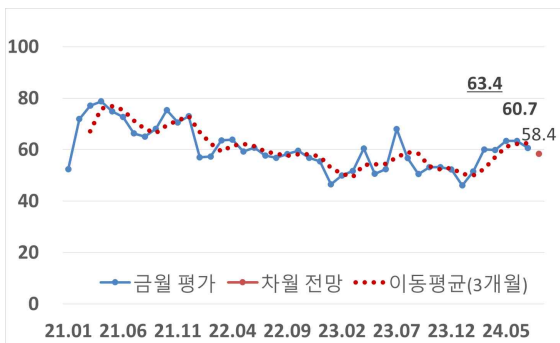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하락,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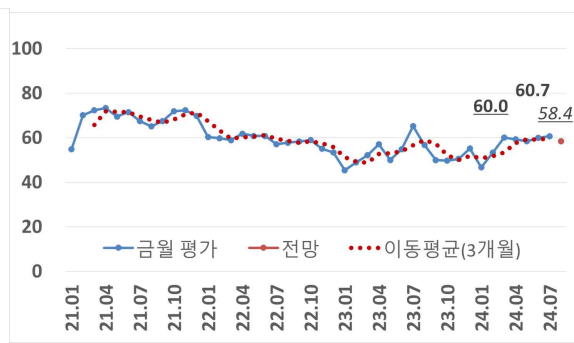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0.7(63.4→60.7)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2.7p), 차월(58.4)에도 연이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2.3p). 대금수금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응답업체들은 주로 건설경기 악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 수도권(53.1→45.5)은 전월보다 악화(-7.6p), 지방(67.5→65.9)은 소폭 하락함(-1.6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0.7(60.0→60.7)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0.7p), 차월(58.4)에는 일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2.3p).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부각한 업체는 없었으나 이 부분은 공사수주의 감소와 맞물린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53.1→59.1)은 전월보다 개선(+6.0p), 지방(62.7→61.2)은 소폭 하락함(-1.5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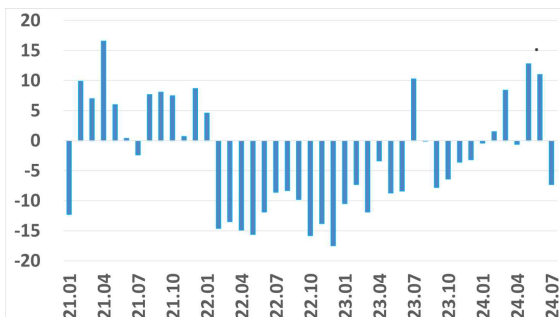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7월 평가	60.7	68.0	45.5	65.9	37.5	82.0
	2024년 8월 전망	58.4	68.5	59.1	58.1	58.3	78.7
자금조달	2024년 7월 평가	60.7	65.2	59.1	61.2	58.3	75.4
	2024년 8월 전망	58.4	69.7	59.1	58.1	58.3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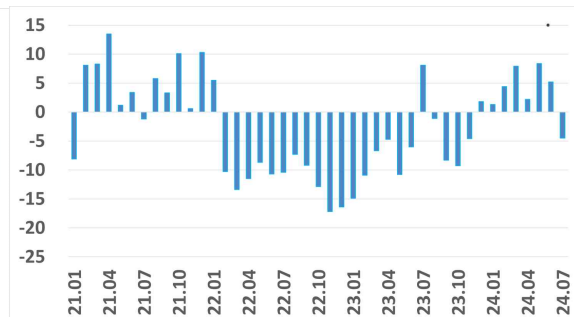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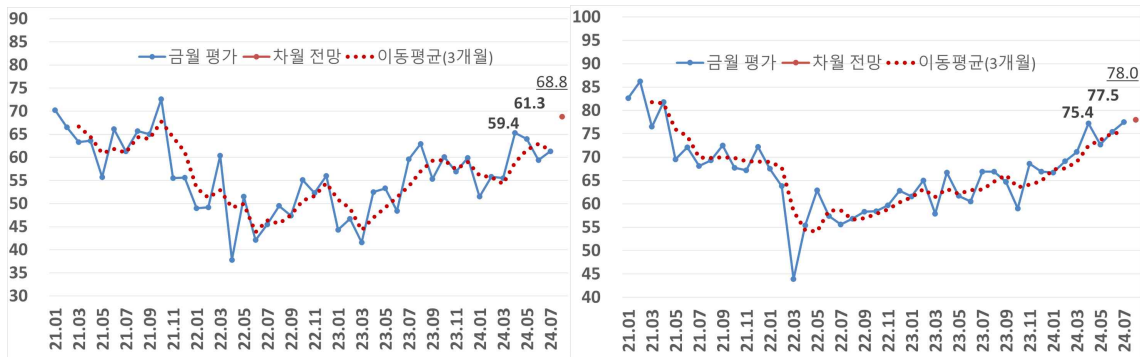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상승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1.3(59.4→61.3)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1.9p), 이는 전년 동월(59.6)과 유사한 수준이기에(+1.7p) 추가개선이 요구됨.
 - 수도권(59.2→68.2)은 전월보다 개선(+9.0p), 지방(59.5→58.9)은 전월수준임(-0.6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7.5(75.4→77.5)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2.1p), 전년 동월(66.9)보다 높았음(+10.6p). 참고로 최근에는 안전관리자 수급문제도 부각됨.
 - 수도권(79.6→77.3)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2.3p), 지방(73.8→77.5)은 개선됨(+3.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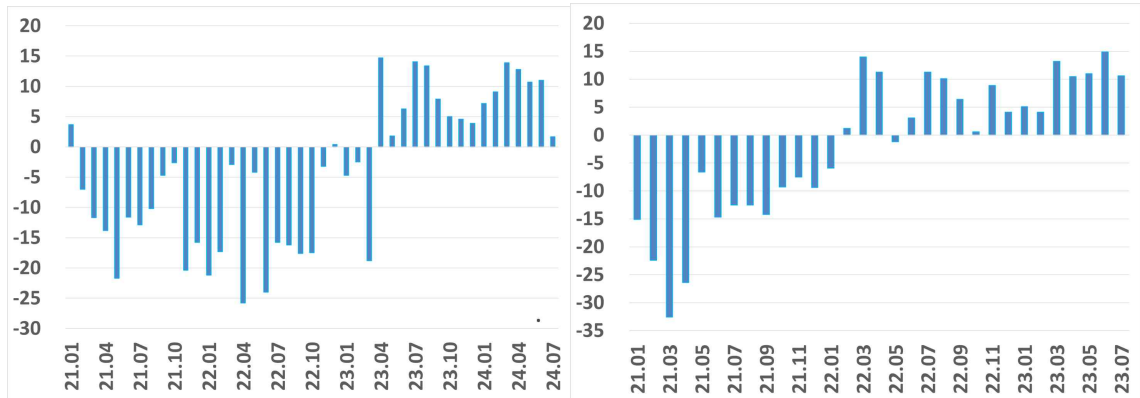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7월 평가	61.3	59.6	68.2	58.9	66.7	78.7
	2024년 8월 전망	68.8	63.5	81.8	64.3	79.2	82.0
인력수급	2024년 7월 평가	77.5	66.9	77.3	77.5	75.0	91.8
	2024년 8월 전망	78.0	70.2	75.0	79.1	66.7	95.1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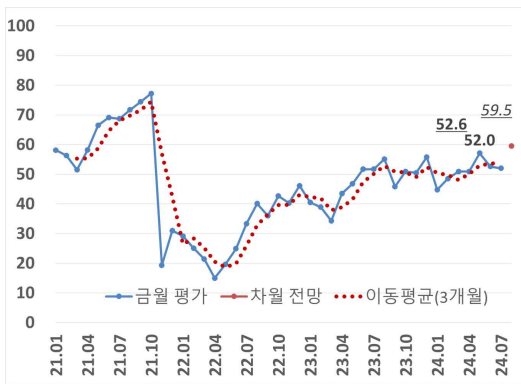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전월 수준, 자재수급지수는 전월에 이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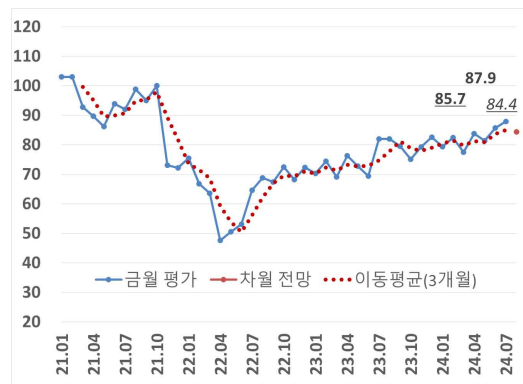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는 52.0(52.6→52.0)으로 전월 수준이었으며(-0.6p) 차월(59.5)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7.5p). 다만 개선되더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수도권(59.2→61.4)은 소폭 개선(+2.2p), 지방(50.0→48.8)은 소폭 하락함(-1.2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7.9(85.7→87.9)로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2.2p) 차월(84.4)에는 일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5p).
 - 수도권(81.6→86.4)은 전월보다 개선(+4.8p), 지방(87.3→88.4)은 유사한 수준임(+1.1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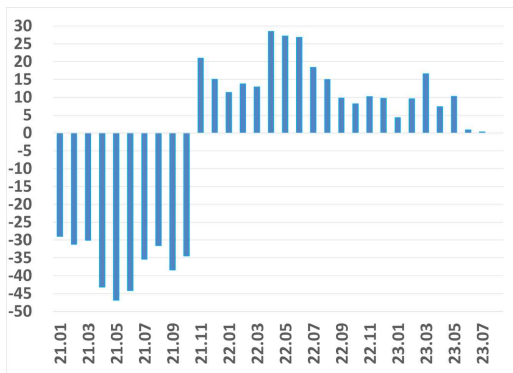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7월 평가	52.0	51.7	61.4	48.8	54.2	63.9
	2024년 8월 전망	59.5	59.0	75.0	54.3	66.7	78.7
자재수급	2024년 7월 평가	87.9	82.0	86.4	88.4	83.3	104.9
	2024년 8월 전망	84.4	81.5	81.8	85.3	70.8	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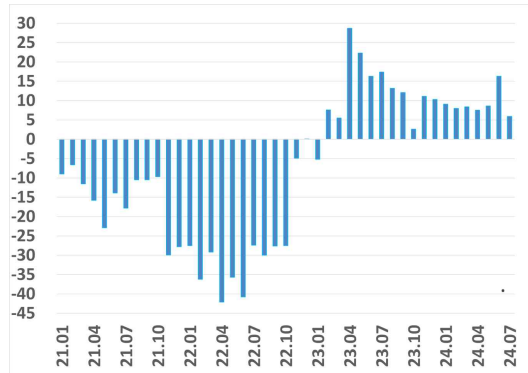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하도급공사는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임. 참고로 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을 유의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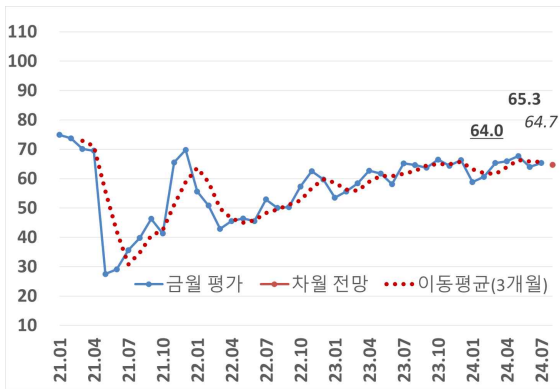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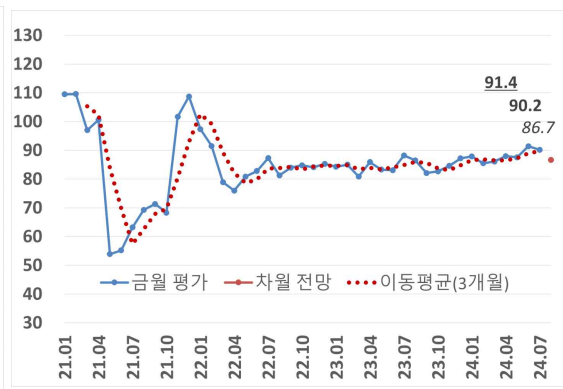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5.3(64.0→65.3)으로 전월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으며(+1.3p), 차월(64.7)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0.6p).
 - 수도권(69.4→75.0)은 개선(+5.6p), 지방(61.9→62.0)은 전월과 유사함(+0.1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90.2(91.4→90.2)로 역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1.2p), 차월(86.7)에는 줄곧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5p).
 - 수도권(89.8→95.5)은 전월에 이어 개선(+5.7p), 지방(92.1→88.4)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3.7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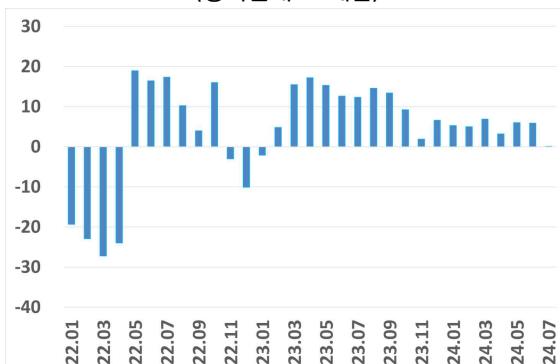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7월 평가	65.3	65.2	75.0	62.0	75.0	77.0
	2024년 8월 전망	64.7	70.2	84.1	58.1	79.2	78.7
장비수급	2024년 7월 평가	90.2	88.2	95.5	88.4	95.8	106.6
	2024년 8월 전망	86.7	87.6	90.9	85.3	83.3	1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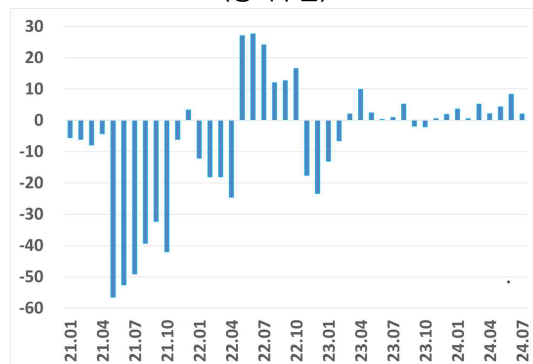
〈장비임대료 체감〉



〈장비수급〉



〈장비임대료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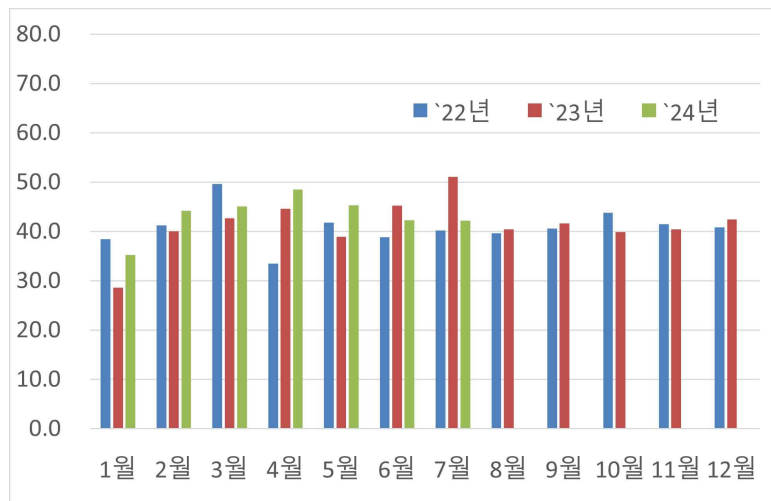
〈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4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2.2	51.1	47.7	40.3	41.7	50.8
		차월 전망	45.1	59.0	56.8	41.1	54.2	55.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4.5	52.2	38.6	46.5	29.2	59.0
		차월 전망	41.0	58.4	50.0	38.0	41.7	50.8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1.0	44.9	43.2	40.3	33.3	57.4
		차월 전망	39.9	55.1	45.5	38.0	33.3	55.7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0.7	68.0	45.5	65.9	37.5	82.0
		차월 전망	58.4	68.5	59.1	58.1	58.3	78.7
	자금조달	금월 평가	60.7	65.2	59.1	61.2	58.3	75.4
		차월 전망	58.4	69.7	59.1	58.1	58.3	78.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1.3	59.6	68.2	58.9	66.7	78.7
		차월 전망	68.8	63.5	81.8	64.3	79.2	82.0
	인력수급	금월 평가	77.5	66.9	77.3	77.5	75.0	91.8
		차월 전망	78.0	70.2	75.0	79.1	66.7	95.1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2.0	51.7	61.4	48.8	54.2	63.9
		차월 전망	59.5	59.0	75.0	54.3	66.7	78.7
	자재수급	금월 평가	87.9	82.0	86.4	88.4	83.3	104.9
		차월 전망	84.4	81.5	81.8	85.3	70.8	103.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5.3	65.2	75.0	62.0	75.0	77.0
		차월 전망	64.7	70.2	84.1	58.1	79.2	78.7
	장비수급	금월 평가	90.2	88.2	95.5	88.4	95.8	106.6
		차월 전망	86.7	87.6	90.9	85.3	83.3	106.6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